

성인 68% 백신 1차 접종... 추석연휴 '위드 코로나' 전환 관심

방역당국, 추석전 70% 접종 '무난' 이달 말까지 전국민 47% 접종완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했지만 접종 완료자 '최대 6인' 모임 허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접종 대상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석 전까지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정부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백신 1차 접종 목표 달성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맞은 사람이 3000만100명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민의 58.4%, 접종대상 연령인 18세 이상 성인으로 보면 67.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받고 있다. /뉴스1

접종별 권장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1774만7159명으로, 전체 접종 대상자의 34.6%가 접종을 마쳤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이날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

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3600만명의 1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의 70%가 추석 연휴 전 1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47% 가량이 접종을 완료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와 치명률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하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공존하는 일상으로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연장했지만,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제한을 완화했다. 6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매장 영업시간도 오후 9시부터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이 외 3단계 이하 지역의 경우,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17일부터 1주일 동안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적용,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 선별리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사례를 경험한 탓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K 방역 2.0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10월 초 50세 이상 접종을 완료하면 방역 전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에 4~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며 "치료 역량과 위중증 환자 수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확산을 방지한 전략을 쓴 국가들은 예외없이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대응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확산 억제라는 방역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기준점으로 고령층 90%,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수소환원제철 모형을 통해 기존 고로공법과 수소환원제철공법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12개국 154개 기업 '수소 기술' 뽐낸다

8일 킨텍스서 '수소모빌리티+쇼' 포스코 6개 그룹사 참여, 사업 공개

세계 12개국 154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 관련 기술을 전시하는 '수소모빌리티+쇼'가 오는 8일 개막한다.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2021수소모빌리티+쇼'가 8일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막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주최·주관기관, 참가기업 대표 등과 함께 전시장 투어도 진행된다.

올해 수소모빌리티+쇼에는 주변국 스웨덴을 포함해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전 세계 12개국, 15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의 제품·기술을 선보인다.

국내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포스코그룹·현대중공업그룹·SK그룹·두산그룹·효성그룹·코오롱그룹 등이 참가하며, 해외기업으로는 프랑스 에어리퀴드, 미국 에어프로덕츠, 오스트리아

AVL, 프랑스 생고뱅, 독일 위켄만 등이 전시부스를 꾸린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그룹의 역량을 집대성한 수소사업 비전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포스코에너지·포스코SPS·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의 그룹사가 참여, 그룹 수소사업 공급망 전반에 걸친 사업 계획을 공개한다. 전시 부스는 면적 540㎡(약 163평) 규모로 ▲그룹 수소사업 비전 ▲수소환원제철 ▲수소 생산 ▲수소 저장·유통(인프라) ▲수소 활용의 테마로 구성된다.

부스 전체 상단을 휘감는 압도적 규모의 대형 파노라마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수소경제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소의 모형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며 미래친환경제철소의 구현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9일 오전 10시부터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수소산업 분야의 최고 혁신기업을 뽑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

中, 경제지표 부진... 안정적 성장 이어갈 것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델타변이 확산, 기업규제 확대에 주식시장 급락 등 '불확실성' 높아 집단면역 달성엔 빠른 소비회복 기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점차 완만해진 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인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하반기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빅테크 중심의 기업규제가 확대되며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주요 실물지표 증가세가 7월 들어 주춤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산업생산지표는 6.4%로 줄었다. 소매 판매와 고정투자(누계)도 각각 전년 대비 2.6%포인트(P), 2.3%p 감소했다.

경기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지수)도 3월을 고점(51.9)으

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리커창 총리가 2007년 언급한 지표(철도물동량, 전력소모량, 은행대출) 증가율을 가중평균한 값인 리커창 지수도 지난 2월 17.6에서 7월 들어 7.5로 급락했다.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주요 기관들도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경계감을 확산하고 있다. 최근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약해질 경우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7월 들어 중국내 델타변이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기업규제를 강화하면서 추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에 대한 속도조절 의지,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신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등을 고려하면 성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도 한몫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금속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급등하고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생산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으로 온전히 전가하지 못할 경우 기업채산성 악화 및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여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진 후 잠재성장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당초 예상보다 성장 모멘텀이 다소 둔화됐으나 델타변이 확산세가 조기에 통제되고 있어 소비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동계올림픽 이전 집단면역이 달성될 경우 소비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편 기업규제 강화 기조는 성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트렌비, 명품 전문교육 수료 검수팀 운영

>> 1면 '치열해지는 온라인'서 계속

트렌비 관계자는 "유통망에 대한 인증 외에도 명품 전문 교육을 수료한 트렌비 내부의 자체 검수팀을 운영하며 국내 병행 수입 상품 및 리세일(중고) 상품에 대한 정품 감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업체에 해당하는 캐치패션은 "백화점 출신의 경영진 덕에 병행 수입 없이 해외 공식 파트너사만 통합한 국내 유일 글로벌 럭셔리 플랫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표 명품 플랫폼들의 '정품' 인증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대상으로 제품 및 정보 확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도 발생했다.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

난 3일 밝혔다.

캐치패션 측은 "3사가 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채널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이라며 "이는 스마일벤처스가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라고 말했다.

캐치패션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사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무단 크롤링한 뒤 이들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